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후 열람실 좌석수 약 73% 감소>

학생들 “시험기간에 공부할 곳 없어요”

학교측 대안으로 제시한 자료열람실 2~5층 이용은 오후9시로 제한

전공시험 전날 7(행정·10)씨는 밤샘 공부를 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중도)을 찾았다. 7씨는 얼마 전 리모델링한 쾌적한 열람실에서 공부할 생각에 한껏 기대했다. 하지만 좌석발급기에 표시된 253개의 좌석 중 여석은 0석이었으며 결국 7씨는 학교 근처 24시 카페에서 공부했다.

중간고사 기간 2(의류·11)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중도에 갔다. 오전10시 무렵이었지만 밤새 꽉 차있던 좌석이 빠지지 않아 공부할 자리를 잡지 못했다. 2씨는 곧바로 ECC 열람실로 내려갔지만, 마찬가지로 자리가 없어 그 길로 집에 돌아갔다.

중도 자유열람실 좌석 수가 감소하면서 좌석 수 확충을 요구하는 학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도는 학생에게 자유로운 협업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취지로 올해 초 지하1층과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다. 이 공사로 1층 PC실과 자유열람실 3실이라운지로 바뀌고 지하1층 자유열람실 2실이 PC실로 변경되는 등 공간 구성이 대폭 변했다. 리모델링 결과 PC석은 91석에서 130석으로, 노트북석은 126석에서 139석으로 각각 약 43%(39석), 약 10%(13석) 증가했지만 자유열람실 좌석은 936석에서 253석으로 약 73%(683석) 줄었다.

학생들은 리모델링 후 줄어든 좌석 수에 불편을 토로했다. 특히 중간고사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할 공간을 찾지 못한 학생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본교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중도 열람실 좌석 수 부족 문제에 관해 시험기간 3주 전부터 약 100개의 불만 글과 댓글이 올라왔다. 학생들은 ‘아직 본격적인 시험기간도 아닌데 리모델링 후 오전11시에도 자리가 없다’ 등의 의견을 올렸고 ‘좌석 수를 줄인 대신 다른 공간이라도 도서관으로 고쳐야 하지 않나’, ‘시험기간에 강의실이라도 개방하든지 새로운 중도를 지어야 한다’ 등 학교 측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평소 중도 열람실을 자주 이용하는 박민지(영문·10)씨는 “열람실이 예전보다 세련되게 바뀐 것은 좋지만, 시험기간에 좌석 대란이 일어날 만큼 좌석 수를 줄인 것은 아쉽다”며 “학교는 시험기간만이라도 시간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도 측은 시험기간이 아니면 열람실 이용이 매우 저조하므로 평상시 이용률이 높은 PC실과 노트북실, 시청각실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중도 현역에 사서장은 “시험기간 중도 열람실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

는 2~5층 자료열람실에 마련된 약 1천500석의 좌석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도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자료열람실의 좌석이 오후9시까지만 개방된다는 점이다. 시험기간에는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학생들은 중도 측의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2(국문·10)씨는 “자료열람실에서 공부하다가 오후 9시에 중도나 ECC 열람실로 옮기면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2(생명·10)씨는 “책을 읽는 서가와 공부하는 열람실의 분위기는 다르다”며 “시험기간에 자리가 없으면 자료열람실을 이용하라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 같다”고 했다.

현재 본교에는 중도 외에도 ECC 자유열람실 1, 2와 이화·신한열람실, 단과대별 열람실 10개 등 14개의 열람실에 좌석이 약 2천496석 있다. 이중 시험기간 동안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열람실은 중도 자유열람실과 ECC 자유열람실 2 두 곳으로 547석이다. 이는 전체 학생 수(1만6천83명) 대비 3.4% 수준이다. 현 사서장은 “ECC는 모든 공간이 이어진 구조라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시험기간 중 자유열람실 2 한 곳만 24시간 개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는 전체 학부생 1만7천27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 좌석 수가 4천371개다. 그중 전체 학부생 수 대비 24시간 개방 열람 좌석 수는 본교의 약 2배인 약 8%(1천366석) 수준이다.

서강대는 시험기간에 퇴실시간 제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좌석 수가 전체 학부생 수(8천400명) 대비 약 11.3%(약 950석)로 본교의 3배 수준이다. 서강대 2(경제·11)씨는 “평소 딱히 도서관에 좌석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 학교에서 시험기간에 강의실을 열람실로 개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전체 학부생 1만6천712명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총 6천553석이고 그중 약 5.9%(979석)는 시험기간에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서울대는 현재 중앙도서관을 한 개 더 늘리기로 하고 건축비를 모금하고 있다. 서울대 최연준(경제·12)씨는 “공부할 곳이 없어 찾아다닌 경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 사서장은 “시험기간에 ECC 자유열람실 2의 자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ECC 자유열람실 1과 이화신한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영 기자 queen@ewhain.net
안규리 기자 ahngyuri@ewhain.net

인사이드

대형강의 수 전국 대학 중 3위 >>2면

이화의 살림꾼 6인 인터뷰 >>5면

인사팀장이 말하는 취업 비법 >>6면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 레시피 >>9면

금주의 채플

6일(월)	10시	
7일(화)	10시	
8일(수)	10시	생명채플
	11시30분	(인도:장윤재 교목)
9일(목)	10시	
	11시30분	
10일(금)	10시	

의전원 채플
이번 주 6일(월)~10일(금)은 시험 관계로 채플이 없습니다.

UC어바인대와 MOU 체결

본교가 미국 UC어바인대(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를 4월5일 본관에서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선욱 총장, UC어바인대 마이클 드레이크(Michael V. Drake) 총장,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본교와 UC어바인대는 앞으로 3년간 교수진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UC어바인대와의 교류협정은 본교 국제 교류의 의미있는 성과”라며 “본교는 UC어바인대와 세계여성 교육 허브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UC어바인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Irvine)시에 위치한 주립 종합대학으로 1965년에 설립됐다. UC어바인대는 2011년 미국 주간지 <U.S. 뉴스&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 내 최고 대학 41위에 오르기도 했다. 백수연 기자 jkbk2002@ewhain.net

본교 파주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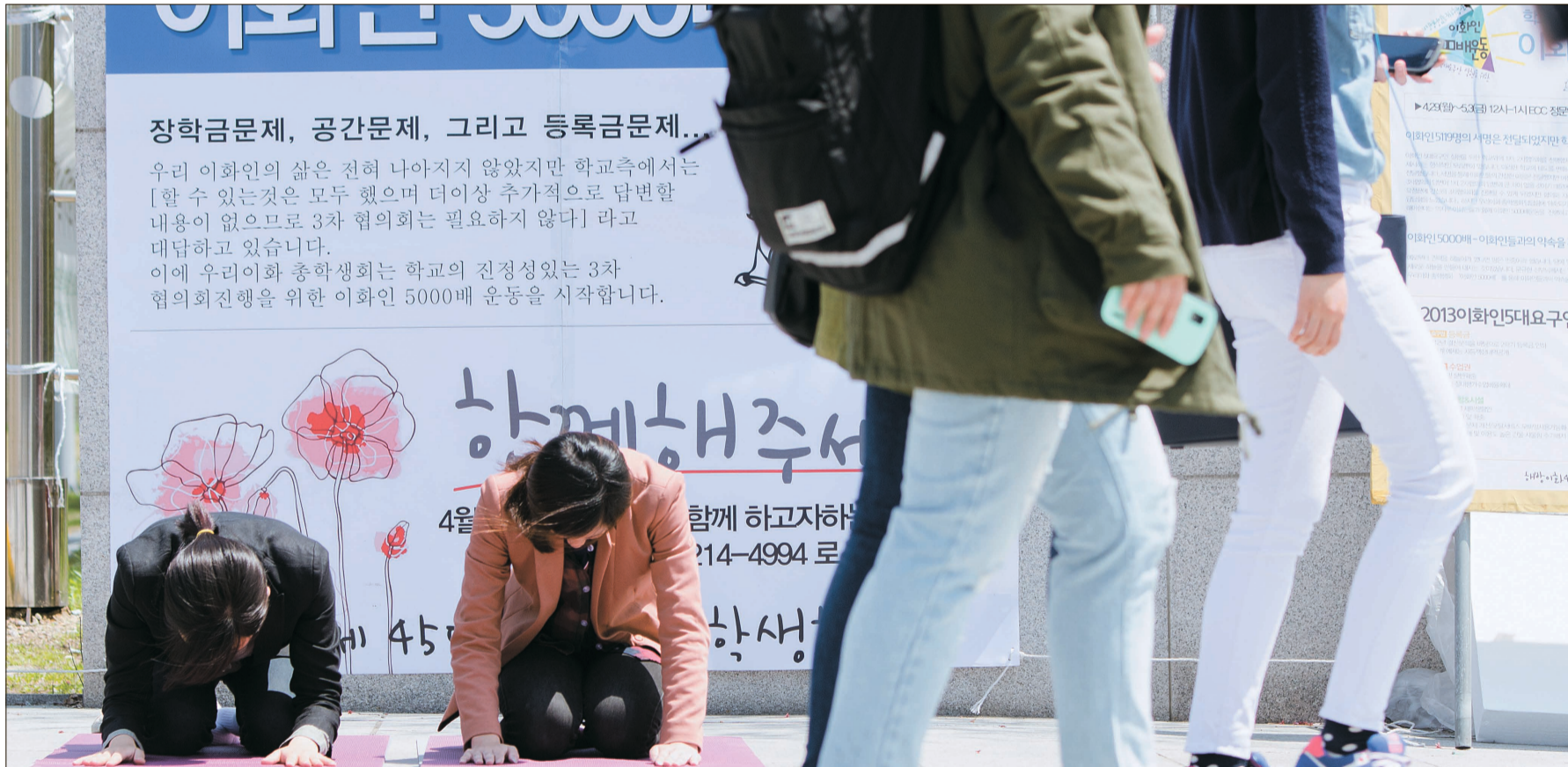
손해배상 책임 없어

본교 파주캠퍼스 사업 철회에 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경기도 파주시가 본교 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사건번호 2012나467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포기의 이유가 합리적이며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교는 2006년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파주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2011년 8월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파주시는 부지로 예정돼 있던 미군기지의 토양정화 비용과 ‘CBS 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지원금 등 14억1천35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9월 소송해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해강 기자 boxer@ewhain.net
박예진 기자 yenny_park@ewhain.net

고해강 기자 boxer@ewhain.net



학생들의 마음을 학교로 전달하기 위한 5천배 총학생회가 4월29일~2일 ECC 정문 앞에서 ‘이화인 5천배 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일 오후6시 학생문화관 4층 전시실에서 열린 제3차 협의회에 학교가 진정성 있게 임해주기를 바라며 진행됐다. 봉우리 총학생회장장과 김경내 부총학생회장장은 500번씩 4일간 절했고 1일부터는 학생 8명이 동참해 5천435배로 마무리했다. 김나영 기자 nayoung1405@ewhain.net

총학, 5대 요구안 실현 위한 이화인 5천배 운동 진행

4월7일 3보 1배에 이어 학생-학교간 협의회 원활한 진행 요구해

4월29일~2일 정오~오후1시 총학생회(총학)가 ECC 정문 앞에서 ‘이화인 5천배 운동’을 진행했다. 3차 협의회를 앞두고 5대 요구안인 ▲등록금 ▲수업권 ▲생활 및 시설 ▲장학금 ▲공간 실현에 관해 이화인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봉우리 총학생회장장과 김경내 부총학생회장, 8명의 이화인은 4일간 5천435번 절을 했다. 3일째부터는 일반 이화인이 참여하기도 했다. 당초 예정은 3일까지였지만 제3

차 협의회가 2일로 잡히면서 2일까지 5천배 운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봉 총학생회장장은 “협의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형식적이 되고 요구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만 반복됐다”며 “학교가 협의회에 더 성의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진(통계·10)씨는 “학생대표가 5천배 같은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다”며 “학교가 학생의 절박함에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은 1차 협의회 이후 ‘이화를 바꾸는 더 큰 함성 크레센도’ 서명 운동을 진행해 이화인 5천119명의 서명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4월11일 오후12시30분 신하운 학생처장은 김선욱 총장 대신 서명을 전달받았다.

운동 기간 동안 총학은 4월8일 오후12시30분 정문·본관 ‘5대 요구안 실현을 위한 총학 대표자 3보 1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3보 1배는 봉 총학생회장장과 김 부총학생회장

이 앞서 걸으면서 절하고 동아리연합회, 사범대학 대표 등 약 15명의 학생이 피켓을 들고 뒤를 따라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민아(경제·09)씨는 “매년 총학에서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교가 요구의 핵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해강 기자 boxer@ewhain.net
박예진 기자 yenny_park@ewhain.net

고해강 기자 boxer@ewhain.net